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이름	고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Texas
파견대학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UTRGV)	파견기간	2개 학기
귀국여부	아니오 (5월 23일)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UTRGV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학교로, 멕시코 국경과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Edinburg, Brownsville, Harlingen 3개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는 Edinburg (E)와 Brownsville (B)에서만 수업을 들으며 (Harlingen은 의대 캠퍼스인 것 같은데 대부분 현지 학생들도 가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E와 B 캠퍼스는 차로 한시간 반정도 거리입니다. E 캠퍼스가 B 캠퍼스보다 더 크고 사람도 많아 좀더 복잡복잡한 분위기이고, B 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좀더 여유롭고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E, B, H 캠퍼스는 모두 셔틀버스로 갈 수 있지만, 정해진 셔틀 시간이 있어 주의해야 했습니다.</p>
2022-가을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사실 제가 UTRGV를 선택한 이유는, 의대가 있는 학교로서 순천향대학교와 마찬가지로 BIO-MED학부 과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Bio-med department는 UTRGV 전공생이 아니라면 교환학생의 수강을 절대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Biology와 Chemistry department 수업을 들어야 해서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혹시 저처럼 UTRGV에서 BIO-Med department 학과 수업을 원하신다면, UTRGV에서는 불가능하시고, 대체로 Biology와 Chemistry department의 수업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prerequisites 과목이 있어야 하는 Advanced과목들 (예를 들어, Advanced</p>

biochemistry은 biochemistry 1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하셨어야 합니다)은, pre-req들을 한국에서 수강했음을 성적표를 통해 증명하고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각 과목별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며, 후기로는 수강한 과목명만 적을 뿐 교수님 성함을 적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Fall 2022 Semester>

1.Introduction of Communication : 미국에서의 첫 학기라 영어실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고 어려운 강의는 전혀 아니었지만, 좀더 영어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제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싶어 수강했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학생들끼리의 interaction보다는, 좀 더 교수님 질문이 많은 일반적인 한국식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2.Advanced Biochemistry : 사실 한국에서 이미 생화학 강의를 수강했어서 Advanced 과정을 수강하였는데, 교수님께서 열정도 많으시고 시험도 과제도 매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화학을 배울 땐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꽤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유익하고 많이 배운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3.Organic chemistry 1 : 한국에서 유기화학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화학을 잘 하지 못해 Advanced과정을 포기하고 유기화학 기초과정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화학언어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된 언어가 달라서 애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한국에서 들었던 과목이라 하시더라도 기초과정부터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처럼 단어도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마다 강조하시는 부분도 달라서 따라가기 버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Neuroscience 1 :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기초과정이라 생각보다 고등학교때 배운 뉴런 관련 활동전위 등등이 더욱 심화된 내용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에는 논문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 있는 분야여서 관련 논문도 재밌었지만, 논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
봄학기
수업

1. *Molecular Biology & Lab* : Lab base의 수업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무척이나 직설적이라 마음 여리신 분이라면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촌테레(?)이시라고 느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시라는 느낌이지만, 그만큼 수업에 있어서는 매사 열심히 이시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 자체로는 lecture은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이미 분자생물학을 수강하고 들어서 그런지 분자생물학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큰 틀을 훑는 느낌이라 아쉬웠지만, 실험과 랩노트 작성 및 과학적 정보의 database 이용법 등에 대해서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Medicinal Chemistry* : 꿈이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라 미국에 가기 전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수업이었지만, Fall semester에는 열리지 않아 부득이 Spring semester에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인도계 분이셔서 사실 accent가 있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수업 자체는 가장 많이 배운 만족도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화학 및 화학구조, 이들의 상호작용 등을 응용하여 약물 전달 및 효용, 대사, 배출, 독성 등을 최적으로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 화학을 전혀 배우지 않으셨던 분이시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많이 생각해주는 분이셔서 E캠퍼스가 주축인 캠퍼스지만, B캠퍼스에서도 화상수업을 통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으며, 교수님께서 E와 B캠퍼스를 번갈아 해 주셔서 물론 저는 E캠퍼스에서 주로 들었지만 부득이 거리/시간상 B캠퍼스에서 들어야 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Medical Microorganism and Immunology & Lab* : Lab base의 수업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한국에서 일반미생물학, 병원미생물학, 면역학 1, 면역학 2를 각각 수강한 뒤 통합된 이 수강과목을 수강해서 그런지 내용 자체는 무척이나 쉽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각각을 자세히 배웠음에도 사실 이 강의를 수강한 주된 목적은 lab base의 실험들을 통해 많은 미생물들을 다뤄보고자 수강한 것이었는데, 실험을 거의 하지 않아 이 역시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 천사 같으신 분이시고, 수업에도 열정적이셨으며 다른 문화에서 온 저를 많이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무언가를 새로 배우려는 목적으로 수강을 원하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새로 배우는 것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첫 학기에 어렵지 않지만 전공과 연계된 과목 수강을 희망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 *Biochemistry Lab 1* : Fall semester에는 아직 영어도 익숙치 않을 것 같아 저 뿐만 아니라 lab partner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p>lab과목은 전혀 수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영어 실력도 직전 학기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해 lab 강의로도 수강해보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화학1 실험 과목을 수강하고 갔는데, 유사한 실험도 많이 했지만 처음 접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천사 같으신 분이시며 외국에서 온 저를 많이 존중해 주셔서 낮가림이 심한 성격임에도 무척 편안한 마음으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열심히 질문드릴 수 있었습니다. 1학점이라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며, 실험도, 과제도 완만하기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선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관련된 Biochemistry 1 lecture도 수업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타 과목과는 달리 연계필수 과목이 아니었는지 저는 lecture은 수강하지 않았고 lab만 수강하였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개강 전에 외국인 학생들을 모두 모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티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권리, 생활 등에 관련한 각각의 담당자분들, 심리상담 담당자분들, International Admission의 담당자분들의 컨택을 보통 강의 초반이나 마지막에 보여주시기에, 그걸 사진 찍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rownsville 캠퍼스 기준으로, International Admission이 Main building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본적은 비자 연장 신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손에 꼽고 보통은 International student assistants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메일 주소는 오티때 사진 찍어둔 International student assistants분들 컨택을 이용하였습니다). 메일 답장이 매우 느릴 수 있으므로, 급한 일이시라면 미리 메일 보내 두시거나, 저는 해본적은 없지만 현지/다른 international 학생들은 종종 직접 가거나 전화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제가 처음 도착한 날은 8월 29일로 그때부터 11월정도까진 정말 무척 더웠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기온이 0도 전후로 까지도 떨어져서 겨울 옷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으시면 많이 추우실 수 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안전에 관해서는, 멕시코 국경과 10마일 떨어져 있다고 들어 매우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저녁수업을 듣는 학생도 많고 경찰분들도 기숙사 옆에 오피스를 두고 계셔서 사실 실제로 위험을 체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으며 페퍼 스프레이와 테이저 건을 안전을 위해 항상 소지하긴 했지만 사용해 본적은 없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현재 Brownsville campus의 casa bella apartment라는 기숙사에 살고 있으며, 4-5인이 거실을 공유하고, 거실에 주방 빨래 등 모든 것이 있어 룸 내에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dinburg campus 기숙사에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로비층을 가본 결과 순천향대학교 기숙사처럼 세탁기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B캠퍼스 기숙사인 Casa bella Apartment는 Building 1~5까지 있는데, Bldg1은 가족단위, 2는 여학생, 3은 남학생, 4&5는 남녀학생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신입생은 Bldg 2, 3에서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기숙사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request를 통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상당히 좋아서 4GB만 구매하셔도 되지만, E캠퍼스와 B캠퍼스를 왕복할 일이 많으시다면 좀더 넉넉히 구매하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 숙소에 오시면 RA (기숙사 사감과 비슷한 역할)가 기숙사 전반에 대해 설명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0)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 거주자는 \$200 이상을 의무적으로 Meal plan 구매에 사용해야 하기에, \$200만큼은 밀플랜을 이용했습니다. Meal plan은 B캠퍼스 기준 library store (Library가 아닙니다)에서 발급받으신 학생증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으며, B캠퍼스는 도서관 옆 grift가 가장 제 취향에 맞는 것이 많았지만, 보통은 밀플랜으로 Student Union의 구내 식당에서 구매합니다. E캠퍼스 학생이라면, Student Union자체도 훨씬 크고 입점한 식당 종류도 많아 E캠퍼스에서는 student union 외의 공간에서는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p> <p>저는 운이 좋게 룸메들과 사이도 매우 좋고, groceries도 쉐어하여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B캠퍼스 기준으로는 차를 타지 않으면 groceries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신선도나 유통기한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면, 그냥 월마트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버이츠도 많이 사용하지만 배달료에 팁까지 있어 월마트 앱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남쪽지역에만 있는 "HEB"라는 마트가 있는데, 월마트 (옷, groceries, literally everything)에 비해 groceries에 치중 되어있지만, 그래도 생활하실 때에 필요한 웬만한 것들은 다 월마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HEB를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E 캠퍼스는 15분 거리내에 월마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차로 15분인지 걸어서 15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p> <p>종종은 룸메들이나 차가 있는 친구들과 다운타운이나 외부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였는데, 좀 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Volt라고 하는 작은 버전 학내순환 차량에 전화하면 캠퍼스 내를 작은 오픈형 차량이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캠퍼스가 워낙 작아 저는 보통 걸어서 캠퍼스에 갔습니다. 시내교통은 사실 이용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급히 차량이 필요하시면 비싸긴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차 있는 친구가 도움을 주어 외부교통은 잘 모르겠지만 버스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300만원	전쟁, 달러 환율상승 등으로 편도임에도 항공료가 매우 비쌌습니다.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없습니다.	수업료 외에 학교 관련 financial balance는 전반적으로 정리해보자면 하단과 같습니다. 1.기숙사비 = \$2000 2.밀플랜 = \$200 3.보험 = \$1400 4.기타(전공책값 등)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았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보험료 = \$1400	보험은 국제학생의 경우 사실 waiver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되신다면 한국에서 보험을 들고 waiver 신청을 하시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자매대학교에서 넣어준 것을 했습니다. (아마 international student (except Mexican)은 필수였던 것 같아 그냥 학교에서 추천해준 것을 들었습니다)
숙소	Brownsville campus의 casa bella apartment = \$2000	Edinburg캠퍼스 기숙사는 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기숙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식비	1.밀 플랜 (필수) = \$200 for one semester 2.groceries = \$60 per month	종종 외부식당도 갔는데, 빈번하지는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니다.
교통비	없습니다.	차 있는 친구들과 주로 다녀서 따로 교통비가 들지는 않았습니니다. 감사한 마음에 종종 가스비를 대신 냈지만 정확히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셔틀버스와 volt를 주로 이용하여 학교 내에서

		교통비가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책값	없습니다.	교재비도 꽤 비싼데, 교재를 요하지 않는 수업도 있어서 (수강신청시 교재 필요 유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이 필요 없는 수업 위주로 들었지만, 아마존에서 책을 싸다고 들었습니다.
기타1	뉴욕 여행= 약 500만원	숙소 (호텔), 교통비 (리프트), 식비+팁, 항공료 (국내선이지만 성수기라 비쌌습니다), 문화생활 (박물관, 뮤지컬 등), 기념품 등등
기타2	캘리포니아 여행= 약 500만원	숙소 (호텔), 교통비 (리프트), 식비+팁, 항공료 (국내선이지만 성수기라 비쌌습니다), 문화생활 (박물관, 뮤지컬 등), 기념품 등등
합계	대략 \$14000	환율이 무척 올랐을 때라 한화로 1500정도 든 것 같습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개인적으로 교환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외이용 수수료 없는 카드를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미국에 와서도 미국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지만, 도착 당일에 당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 개설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좀 있으며, 미국 계좌 연동 카드를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저처럼 break기간동안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제학생증 (저는 isic, isec 둘다 만들었습니다)을 사전에 발급해 오심을 추천 드립니다. 학생증 할인되는 박물관 등이 많습니다. 여행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신분증처럼 사용 가능하기에 저는 사전발급해 소지하였습니다.

-스피킹 (실생활 영어)을 미리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하신 뒤에 오시는게 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준비없이 와서 처음엔 말도 생각보다 잘 안 들리고 안 나와서 깊이 있게 친구를 사귀는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 잘 생활하였지만, 보통은 스피킹이 많이 약하시면 초반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UTRGV의 경우, 요청하신다면 공항에서 학교까지 픽업차량을 연결해주실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기독교 단체에 문의를 드리는 것이라, 그분들 일정에 따라 향시 있는 것은 아니고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사전에 미리 픽업해 주시는 분과 컨택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구글에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치면 McAllen 공항이 뜨는데 이는 E캠퍼스와는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B캠퍼스에서 차로 한시간 반정도 거리입니다. B캠퍼스는 Brownsville airport가 가장 가까우실겁니다.

-도착하신 뒤에는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이틀에서 삼일은 짐정리 하시면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물, 식량 구매해서 숙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않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파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리를 약간이라도 익히실 때 까지는 숙소에만 머물러도 안전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물이라도 구매해서 들어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UTRGV casa bella 기준, 기숙사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Sunoco라고 gas station이 있어서 급하게 필요하신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픽업해주신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마트도 함께 들려주셔서 포크, 숟가락, 침대커버, 비누, 휴지, 물 등등 급하게 사용해야할 것들은 도착 당일 구매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실 경우라면 급하게는 월마트 앱 배달, 우버이츠, Sunoco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텍사스가 사막이 많다고 해서 저는 얇은 옷만 가져왔는데, 11월 12월 즈음에는 굉장히 추워서, 그리고 더울 때에도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위로 조금 고생했습니다. 때문에 겹옷이나 긴팔도 가져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도 생각보다 매우 많이 와서 작은 접이식 우산 하나정도는 구비해 오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여성분이시라면 생리대, 화장품은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가져와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아마존에서 한국에서 쓰시던 제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생리대도 역시 생각보다 엄청 비닐 같거나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버나이트 사이즈는 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민감성 피부시라 쓰시던걸 쓰셔야 한다면 그것과 아마존에서 없는 것만 가져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휴대폰 유심은 주위에서는 보통 esim이라고 물리적 심이 없는 것을 많이 했지만, 저는 아이폰 8세대였어서 esim지원이 안돼 도착해서 물리적 심을 구매했습니다. esim지원이 되시면 esim이 편하실 것이고, 안되시면 로밍하고 오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만약 물리적 심카드 사실 계획이시라면 이때 온 서류들 다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이를 이후 미국 계좌 만드실 때 주소 증명에 사용하였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사실 전 동기들보다 나이도 많고, 4학년때 교환학생을 가서 초과학기를 한 경우라 반학기만 할까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영어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도 생각중이시라면 가능하시다면 저학년때 다녀오셔서 졸업하실 즈음에는 대학원 준비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미국 명물 완전 큰 다람쥐</p>	<p>Edinburg student union에서 산 초밥 (Brownsville gift에서도 종종 판매)</p>
	
<p>Brownsville library</p>	<p>Brownsville의 campus와 campus를 잇는 다리</p>



뉴욕 여행



캘리포니아 여행